



청화 대종사 부도탑 제막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시몽)는 11월 27일 부도전에서 '우주당 청화 대종사 부도탑 제막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과 청화스님 문도 대표 형파 스님과 문도 스님 및 신도 등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4대강사업 중단' 기원 순례

## 국민소송단, 4대강사업공사중단 가처분 신청

지울 스님과 종교인들, 시민단체가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해 '종교인과 함께 하는 낙동강 이야기' 순례 길에 나선다.

환경·시민단체와 종교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1월 22일 영산강과 금강에서 '4대강 사업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에 종교계와 부산지역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낙동강3.14'는 "생명경시풍조"와 '개발 성장주의'를 성찰하고 생명과 평화의 길을 모색하자"며 "12월부터 지속적으로 낙동강을 순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순례길은 매 주말 1박 2일 동안 상주 경창교에서 상주보 건설현장을 지나 장안사, 회룡 마을, 내성천, 병산서원 산길, 마애습지, 풍

산 등을 도보하듯 여정이다. 지울 스님은 "낙동강3.14'와 함께 매 주말 상주에서 안동까지 '4대강 사업 중단 기원' 순례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강을 외면할 수 없다"며 "이곳(낙동강)을 배회하는 마음은 불안하지만 희망은 우리에게 있다. 자연으로 향하는 우리의 걸음이 자연을 치유하는 힘이 된다"며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지울 스님.

낙동강 순례 신청은 낙동강3.14(www.nakdongkang314.org)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5만원이다.

한편, '4대강 사업 위험·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하 4대강소송단)'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반법치적 사업"이라며 '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명진 스님(봉은사 주지) 등이 동참한 4대강 사업 위험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만여명은 11월 26일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사업에 대한 위법소송을 제기했음을 밝혔다.

4대강소송단은 "4대강 예산 때문에 국회가 어지러운데, 정부는 4대강 기공식을 강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4대강사업의 내용적 위법성까지 모든 사항에 대해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sunjoo0802@naver.com

# 깨달음의 사회화 위해 정진

## 올해 재가불자상 우희종 교수 선정



2009재가불자상 선정된 우희종 교수.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김동건)는 11월 26일 '2009올해의 재가불자상'에 서울대 우희종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우희종 교수가 참여불교적 관점에서 사회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적 생명존중의 신념으로 사회 변화에 도움이 되고자 각종 토론회 발표 및 저술 활동을 한 것은 다른 이의 모범이 됐다"며 선정 사유를 밝혔다.

우희종 교수는 현재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와 대한면역학회 이사,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센터 배아연구계획 심의역무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위원, 한국수의면역학협

의회(KVIC) 회장, 법무부 보호소년지도위원등 많은 직함으로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불자로서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이사,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전문위원, 불교신문 논설위원, 조계종 중앙신도회 대의원, 조계종 포교연구위원회 연구위원, 제23기 민주화를 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상임공동의장을 맡아 깨달음의 사회화를 위해 정진하고 있다.

'2009올해의 재가불자상 시상식은 11월 28일 오후 3시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회관 2층 민해NGO교육센터에서 '참여불교재가연대 총회'와 함께 개최됐다.

박선주 기자

#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 위해 쓰여

## 진흥원, 군중교구에 후원금 1억원 전달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11월 25일 마포 다보빌딩에서 조계종 군중교구(교구장 자광)에 군포교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민병천 이사장은 "(자광 스님의) 손이 따뜻하니 마음도 따뜻하겠다. 지속적으로 군포교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자광 스님은 "연무대(육군 논산훈련소) 법당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진흥원의 도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군중교구는 이 후원금을 군승·

간부 불자 연수와 군종병 집체교육, 민간인 성직자 교육 등 군 포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에 집중 사용하기로 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진흥원은 1976년 설립당시부터 지금까지 50여 동의 군법당 지원과 50만부의 불서 등을 보급하며 군포교 진흥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불사 등에 치중해 집행된 예년의 후원금과 달리 올해부터는 교육 등 군포교 진흥 프로그램 개발에 주로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종섭 기자

**법보시 나눔마당**

하루 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속에서 불법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생활속 참선수행이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성을 밝히는 수행과 실천에 관심있는 분이려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마음공부의 마당이 한마음선원에서 마련됩니다.

**제 12회 마음공부포럼**

일시 / 2009년 12월 20일(일)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장소 / 한마음선원 본원 주회 / 한마음선원 주관 / 한마음과학원 후원 / 현대불교신문사

▶선착순 입장이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31)471-692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는 열혈노인입니다!

## '2009 탐골대동제 열혈노인' 개최



난타공연을 선보이는 어르신들.

사진= 박재완 기자

어르신들의 삶의 추억과 연륜이 묻어나는 문화예술의 장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는 11월 24~27일 관내에서 '2009 탐골대동제 열혈노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문화교실, 탐골문화예술학교 참여 어르신들이 한 해 동안 배우고 익힌 각자의 기량과 실력을 선보이는 '새로운 노인문화예술이 있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복지관은 행사기간동안 동아리 어르신들이 직접 작업한 작품들을 시화전, 서예전, 동·서양화전, 미디어상영전을 통해 전시했으며 서울노인복지센터를 기념하는 티셔츠 및 의류전시로 이뤄진 설치미술전도 함께 진행했다.

행사 셋째 날인 26일에는 1부 마임·난타 공연과 2부 연극공연이 진행됐다.

공연에 앞서 가섭 스님은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전통문화, 예술공연, 언어, 건강증진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이어져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보람을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행사 셋째 날인 26일에는 1부 마임·난타 공연과 2부 연극공연이 진행됐다.

공연에 앞서 가섭 스님은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전통문화, 예술공연, 언어, 건강증진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이어져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보람을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02)6911-9555 이나은 기자

# 언론문화상 대상 '출가, 그후 10년'

## 본지 임연태 부국장 신문부문 최우수상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불교발전에 이바지한 언론인에게 수여되는 제17회 '불교언론문화상'



임연태 편집부국장.

신문부문 최우수상에 본지 임연태 부국장의 '감성으로 가는 부도밭 기행'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감성으로 가는 부도밭 기행'은 사찰의 후미진 부도밭을 집중조명하고, 기사의 완성도가 높고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은 MBC 스페셜 '출가, 그후 10년'에게 돌아갔다. 1998년 MBC스페셜을 통해 소개됐던 조계종 행자교육원 18기 행자들이 10년 후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보여주며 삶을 되돌아보게 해준 작품으로, 참신한 기획력과 돋보이는 구성으로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탄생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심사를 맡은 월호 스님(쌍계사 승가대학 교수)은 "사미계를 받은 후 10년째 스님들의 모습을 다룬 점이 신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의 수상(재)에는 △불교언론인상에 박준영(前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신문부문 우수상 금강신문 취재팀 '스러졌다 살아난 옛 절' △TV부문 최우수상 KBS '禪의 황금시대를 열다 신라승 무상', 우수상 SBS 스페셜 '늘, 길위의 하루' △라디오 부문 최우수상 MBC 부처님오신날 특집 '신부님이 찾아간 낙산사', 우수상 울산BBS '다도명상으로 다시 태어난 초의선사의 유산, 차' △인터넷부문 최우수상 무비스님 '열화실', 우수상 신화권 '불교포커스' △특별상 조명희 KBS 심의위원이 선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이 주최하고 불교언론문화상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7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은 12월 17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이은경 기자

# '생명의 물' 홍보대사

## 가수 소녀시대 나서

"생명의 물로 모두 깨끗한 물 마셔요"

가수 소녀시대가 '생명의 물' 홍보대사로 나선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12월 8일 오후 3시 성남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수센터에서 '생명의 물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한 다.

생명의 물 사업은 수인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지구촌 이웃에게 깨끗한 식수를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캄보디아에서 시작했다.

지구촌공생회 측은 "돼지, 오리가 살고 있는 집 앞 웅덩이 물을 먹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팠다"며 "인간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하게 살 권리를 위해서 생명의 우물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생명의 우물 1000개 사업은 2010년 1월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박선주 기자